지방국토관리청 적용 특허공법 대폭 늘어

16건의 공사에 적용된 특허 · 신기술 151개

올해 들어 국토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신기술)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사가 1-2월에 집중된 탓도 있지만 특정 공법을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개가 넘는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도 나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각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입찰공고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허 공법이 적용된 프로젝트는 16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익산청이 8건(총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청 4건(총 6건), 원주청 2건(총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총 3건)과 부산청(총 1건)은 특허가 적용된 공사를 각각 1건씩 발주했다.

프로젝트 수만 따지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게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5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총 36건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이 특허 공법이 반영된 프로젝트였다. 무려 80.5%에 달했다.

그러나 특허(신기술) 수를 살피면 올해가 압도적이다. 이날까지 발주된 16건의 공사에 적용된 특허나 신기술은 총 151개에 달했다.

지난해 총 적용 특허 수(153개)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공사 1건당 10개에 가까운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셈이다. 적용 특허 수가 20개를 넘긴 프로젝트도 있다.

익산청에서 발주한 478억원(이하 추정가격) 규모의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2공구의 경우에는 22개의 특허(신기술)가 적용됐다.

333억원의 3공구도 21개의 특허가 적용됐다. 296억원의 1공구 역시 19개의 특허가 적용됐으니, 이들 3건의 공사에서 총 62개의 특허가 반영된 셈이다.

업체별로는 유압식 수문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진산업이 고부천유역 1~3공구에서 각 6개씩의 특허를 반영시키면서 총 18개로 가장 많은 건수를 자랑했다.

역시 수문 분야에 특허를 갖고 있는 우일산업도 같은 프로젝트에서 각 5개씩, 총 15개의 특허를 반영시켰다.

수문을 제외하고는 교량 빔·거더 쪽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다. 우경건설이 총 7건의 특허 공법으로 산뜻한 출발을 보였고, 삼현피에프도 5건을 반영시켰다.

특히, 우경건설은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 1~3공구 외에 충청내륙고속화 1-2공구(대전청), 국도 31호선 평창 방림-장평1(원주청) 등에서도 특허 공법 수주에 성공하면서 전국구로서 입지를 굳혔다.

/안재용 기자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 참가 농진청은 aT와 협업해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지바현에서 열리는 '제42호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전북농협, 농업인과 고객 감동 실현

더 헤아리는 서비스 CS 3.0 교육 실시

전북농협은 지난 6일 지역본부에서 지역 농·축협 신용사업 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 올해 농협 상호금융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과 고객을 감동시키는 '더 헤아리는 서비스 CS 3.0'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주 실시한 농협 CS 3.0 농·축협 동시 발대식에 이어서 농·축협 창구에서 임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호금융 소비자보호부 전문 강사인 이다혜 강사가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고객응대 방법과 고객의 종합적인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 교육과 전문 강사 김지언 대리가 고객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성공적인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권대영 차장의 기본으로 돌아간 고객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역량 다지기 강의가 있었다.

농협은 올해 '더 헤아리는 서비스 CS 3.0'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만족을 위한 농협인의 실천운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조인갑 부본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농업인과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경제통상진흥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시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신뢰성 제고 및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지원하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자 확인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FTA활용지원센터)과 관세사가 협력사에서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를 검토. 확인해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경진원은 지난 2월 FTA전문 관세사 13명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컨설턴트(관세사)의 서류검토 및 기업방문을 통해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해 내수 및 수출협력기업의 FTA활용률 제고와 도내 중소기업들의 통상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수출업체 협력사는 수출자의 과도한 원산지 검증 요구가 완화되고,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해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47개사 9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검토를 지원한 바 있으며, 업체당 신청품목 수 는 5개까지 무료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화(711-2045) 상담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재용 기자

3월 이후 한우 도매가 전년대비 약세 보일 듯

농촌경제연, "2~3 등급 · 육우 도매 가격 하락폭 더 클 것"

3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첫 축산관측을 발표했다.

한우의 경우 고기소와 송아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고 한우고기 도매가격 또한 약세로 전망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수익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우 도축 마릿수 증가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소비자 심리지수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요 불확설이 커, 3-5월 큰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kg당 1만6,000-1만7,000원선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우고기 2~3 등급과 육우 도매가격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가의 번식의향 증가로 암소 출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이는 도축물량 감소로 이어져 한우 도매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3월 이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육우 사육이 늘고 도축 마릿수가 감호해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262만8000마리로 전망되고, 6월에 가도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275만7000마리로 예측됐다.

또한 출하대기 물량이 증가해 3~5월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18만7000마리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약세로 전망되고 있지만 3~5월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약세가 전망되지만 청탁금지법 이후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3-5월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9만1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송아지 생산도 지난해보다 늘어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한우 정액 판매량이 185만5000스트로로 지난 2015년보다 4.8%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송아지 생산 잠재력은 지난해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농가의 수익성은 지난달 한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일 경우 경영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리 당 소득은 1등급 이상의 경우에도 지난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만원 이상 낮아졌다. /안재용 기자

LX, 자전거도로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간정보분야 싱크탱크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협력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나선다.

LX공간정보연구원과 행정자치부는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자전거 도로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가 2011년 1만2,121건, 2012년 1만2,908건, 2013년 1만3,316건, 2014년 1만6,664건, 2015년 1만7,36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정비는 정부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에 소홀한 실정이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전거도로 활용 및 관리체계 조사·분석,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 수집을 통한 사고유형별 공간분석,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 도출,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농업인의 노후생활 개선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해까지 758개의 농가에 68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34억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올해부터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고자 '전후후박' 형 신규상품을 출시했는데,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보다 월지급액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과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재용 기자